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11월 16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6일(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승헌 서기관(044-203-4341)
섬유세라믹과 최승효 사무관(044-203-4294)

소비재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본격 시동

-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(11.11일)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비재산업 TF 본격 가동-
-소비재 기업, 유관기관 등이 모여 소비재 명품화, 마케팅 다각화 등을 위해 4시간 가량 난상토론 개최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제1차관**은 11.16.(월) **소비재 산업의 명품화 및 수출 확대,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에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**을 논의하기 위해 **소비재 육성 및 수출 활성화 간담회**를 가졌다.

* 일시·장소 : 11.16일(월) 09:30~13:20,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
* 참석기업 : 삼성전자, LG전자, 쿠첸, 쿠쿠전자, 대상, 매일유업, 이랜드월드, 인터파크, 삼익악기, 영실업, 제로투세븐, 두일교역, 옵토모드 등
* 유관기관 : KOTRA, 무역협회, 무역보험공사, 중소기업진흥공단, 디자인진흥원

○ 간담회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주재로 11.11(수)에 열린 **「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」 후속조치의 일환**으로서, 산업부내 소비재 관련 부서로 구성한 **'소비재 산업 특별팀(TF)'**의 첫 공식 행사다.

* 전자전기과, 산업분석과, 섬유세라믹과, 디자인생활산업과, 수출입과 등 소비재 관련부서 인원으로 구성

□ 이관섭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**전 세계적인 소비재 수요 증대, 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,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**(신창타이) 등 **소비재 수출 확대 필요성이 점차 증가**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
○ 국내 소비재산업이 자동차·정보기술(IT) 등을 제외하면 다른 제조업에 비해 **브랜드 및 기술력** 등 전반적인 **글로벌 경쟁력이 취약**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.

○ 이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된 **소위 명품 소비재는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꾸준한 판매를 기록**하고 있는 만큼, 우리도 명품 **소비재를 만들고, 수출 확대**를 통해 **소비재 기업은 물론 연관 소재·부품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**하다고 강조했다.

□ 모두발언 이후, 참석기업과 정부 및 유관기관은 **약 4시간에 걸친 치열한 난상토론을 했다.**

○ **소비재는 품목과 범위가 다양**한 만큼, 각각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고, **해당 품목별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여 '맞춤형 정책'을 추진할 필요**가 있음에 공감했고,

* 시계, 완구, 패션, 의류, 가전 등 품목별로 기술력, 마케팅, 브랜드, 품질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다른 측면

○ 소비재 분야가 **타 분야(디자인, 금형, 사출, 소재, 난삭가공 등)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**을 통해 **부족한 품질 문제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**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.

○ 특히, **중국 진출의 경우, 유통망 개척이 무척 어려운 측면**이 있는 바, **중국 유력 유통회사와 국내 소비재 기업간 매칭 기회 제공, 旣 진출해 있는 국내회사 유통망 공동 활용 방안, 정부간 협력을 통한 마케팅 기회 제공**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,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.

□ 산업부는 **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확대**하기로 했다.

○ **단기적으로는 중국 등에 대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**하고, 추후 범부처적으로 명품 소비재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**「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」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**해 나갈 예정이다. 끝.

○ 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FTA 전략적 활용과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강화를 위해 명품 소비재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승헌 서기관(☎044-203-43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